

제61회 창원시의회(임시회)

본회의회의록

개회식

창원시의회사무국

일시 2016년 10월 12일(수) 14시

제61회 창원시의회(임시회) 개회식순

- 1. 개식
- 1. 국기에 대한 경례
- 1. 애국가 제창
- 1. 순국선열 및 호국영령에 대한 묵념
- 1. 개회사
- 1. 폐식

(사회 : 의정담당 박중현)

(14시00분 개식)

○의정담당 박중현 반갑습니다. 의정담당 박중현입니다.
 지금부터 제61회 창원시의회(임시회) 개회식을 시작하겠습니다.
 먼저 국기에 대한 경례가 있겠습니다.
 모두 단상의 국기를 향해 일어서 주시기 바랍니다.
 (국기에 대하여 경례)
 다음은 애국가 제창이 있겠습니다.
 반주에 맞추어 1절만 부르겠습니다.
 (애국가 제창)
 다음은 순국선열과 호국영령에 대한 묵념이 있겠습니다.
 (일동 묵념)
 모두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의장님의 개회사가 있겠습니다.

○의장 김하용 존경하는 107만 시민 여러분! 그리고 동료 의원 여러분!
 안상수 시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결실과 풍요의 계절 10월에 제61회 임시회를 개최하여 의원님들과 공무원 여러분의 활기차고 건강한 모습을 뵙게 되어 대단히 기쁘게 생각합니다.
 그러나 한편으로는 지난 태풍 18호 ‘차바’로 인하여 강풍과 폭우에 피해를 당한 시민들에게 안타까움을 금할 수 없으며, 피해복구를 위해 부단히 노력하고 계신 안상수 시장님을 비롯한 공무원 여러분의 노고에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폐회 중 지역민생 현장에서 태풍 ‘차바’ 피해복구 등 활발한 의정활동을 펼쳐주신 의원 여러분께도 감사를 드립니다.
 존경하는 시민 여러분!
 10월에는 제16회 마산가고파 국화축제를 비롯한 각종 문화 행사가 다양하게 개최되어, 많은 관광객들이 우리 창원을 방문하여 우리 지역의 우수한 문화예술 행사를 즐기게 될 것이며, 이로 말미암아 명실 공히 문화예술도시 창원시의 위상을 전국에 널리 떨치게 되고, 지역민의 경제적 결실을 거두는 일거양득의 효과를 얻게 되리라 생각합니다.
 비록 태풍 피해 복구에 여념이 없지만, 10월의 문화예술 향연으로 잠시나마 피로와 아픔을 잊고 치유의 시간이 되시길 바라며, 나아가 이러한 문화행사를 통하여 시민 모두가 화합하고 소통하여 더 나은 창원시 발전의 계기가 되기를 희망합니다.

존경하는 동료 의원과 공무원 여러분!

오늘부터 6일간 열리게 되는 이번 제61회 임시회에서는 집행기관에서 요구한 조례 안건 등을 상정 처리하게 됩니다.

의원 여러분들께서는 안건 심사에 있어서 성실하고 진지하게 검토해 주시고, 집행기관 공무원 여러분께서도 성실하고 적극적인 자세로 이번 임시회에 임해 주시기를 당부 드립니다.

아무쪼록 이번 임시회가 시민에게 희망과 신뢰를 심어주는 소중한 회기가 되기를 바라며, 시민 여러분과 이 자리에 참석하신 모든 분들의 건승을 기원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의정담당 박중현 이상으로 개회식을 마치고, 이어서 본회의가 진행되겠습니다.

(14시07분 폐식)

○출석의원(41인)

- 강영희 강장순 강호상 공창섭
- 김동수 김삼모 김석규 김순식
- 김영미 김우돌 김이근 김장하
- 김종대 김재철 김태웅 김하용
- 김헌일 노종래 노창섭 노판식
- 박옥순 박춘덕 방종근 배옥숙
- 배여진 송순호 손태화 유원석
- 이상인 이옥선 이찬호 이천수
- 이치우 이해련 이희철 정쌍학
- 정영주 조영명 주철우 한은정
- 황일두

○출석공무원

- | | |
|-----------|-----|
| 시 장 | 안상수 |
| 행정국장 | 임인한 |
| 경제국장 | 송성재 |
| 환경녹지국장 | 황진용 |
| 복지여성국장 | 이용암 |
| 해양수산국장 | 양운호 |
| 도시정책국장 | 제정일 |
| 안전건설교통국장 | 권중호 |
| 농업기술센터소장 | 최용균 |
| 진해보건소장 | 조현국 |
| 도시개발사업소장 | 이환선 |
| 문화도서관사업소장 | 홍의석 |
| 상수도사업소장 | 김원규 |
| 차량등록사업소장 | 김용운 |
| 의 장 구 청 장 | 신용수 |
| 성 산 구 청 장 | 이명옥 |
| 마산합포구청장 | 김홍수 |
| 마산회원구청장 | 조철현 |
| 진 해 구 청 장 | 강호동 |